

# 민원 원스톱 시스템 · 조례 제정 요구

## 고성군 귀농·귀촌 한마당 연합회, 제3회 한마당 대회 개최 ... “고성군 인구 증가 기여하자”

서울 등 도시에서 생활하다 고성으로 이주해 사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인구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원 원스톱시스템과 조례 제정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 귀농·귀촌 한마당 연합회(‘고귀한’, 회장 오정은)는 지난 3일 고성군 농업단체회관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한마당 대회를 열고, 고성군의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성군에 토지구입이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귀농·귀촌 인턴제 운영과 공공근로 및 공기관 계약근로직에 귀농·귀촌인을 우선 배치해 달라고 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해 주택 구입 및 수리비와 농림수산업 창업비, 생활안정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등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도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건립해 귀농·귀촌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경과보고에 이어 귀농·귀촌인 선언문 낭독, 오정은 대표 인사말, 참석자 자기 소개, 자유토론 및 의견교환, 건배제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귀농·귀촌 홍보대사가 되어 고성지역 1차 산업의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하자”고 선언했다.

오정은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제 유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

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다”며 “귀농·귀촌인 여러분들의 선택은 후손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고성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기존 마을 주민들과 농사방법이나 가치관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 별도의 ‘귀농인 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성읍과 거진읍 일원에 귀농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성군 관계자는 “현재 귀농인 실습비 지원과 용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



고성군 귀농·귀촌 한마당 연합회는 지난 3일 고성군 농업단체회관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한마당 대회를 개최했다.

으며, 올해 5월 귀농·귀촌페스티벌에 참가해 3일 동안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농무기 해양사고 주의하세요”

### 속초해경 6월말까지 ‘농무기 해양사고 대책’ 기간 설정

속초해양경찰서는 봄철 해상의 짙은 안개로 인해 선박 운항시 각종 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6월30일까지 ‘농무기 해양사고 방지 및 구조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봄철은 계절적인 특성상 일교차가 커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해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며, 행락객 증가로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울산 울주군 간절곶 앞바다에서는 안개로 인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화물선 2척이 충돌하는 등 최근 3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총

1,029척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농무기 기간인 3월부터 6월 사이에 292척(28.4%)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해경은 안개 발생 시 조업 및 운항중인 어선과 선박을 대상으로 신속한 전파와 안전방송을 실시하고 사고발생이 높은 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안전운항 계도활동을 펼친다.

또 주요항을 중심으로 항로 보전을 위한 순찰활동과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유·도선에 대한 항해·기관·인명구조장비 등 선체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해경관계자는 “봄철 농무기에는 무리한 선박 운항을 삼가고 해상에서 기관고장, 기타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해양사고 긴급 구조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고성사랑 실천은 고성신문 주식 갖기부터

## 고성신문 주주 大모집

창간 2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고성신문과 함께할 주주를 모십니다. 고성신문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 ○ 고성신문 주주가 되는 방법

- 고성신문 주식을 구입하면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1주의 가격은 1만원입니다. 주주 참여는 10주(1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 주식 구입 의사를 밝히고 금액을 입금하면 주권을 전달해드립니다. 주권은 1만원권, 10만원권, 100만원권 3가지 종류로 발행됩니다.

### ○ 고성신문 주주가 되면

- 고성신문 주주가 되시면 고성신문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등에 참석해 주주로서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연말 결산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고성신문이 주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에 초대권을 우선 보내드립니다.

### ○ 고성신문 이사가 되면

- 고성신문 이사는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사 선거를 통해 선임됩니다.
- 이사들은 매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회사 경영 전반을 살필 수 있으며, 경영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 이사는 임기 3년의 대표이사, 감사, 전무이사 등의 임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고성신문 ☎033-681-1667